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위수여식 연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깊은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증서와 상장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보람도 크고 기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졸업식에 와서 보니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인 자리치고는 엄숙하고 조용합니다. 가슴으로 몽클한 느낌을 전달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성취를 했습니다. 그 성취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취 도구로 배움을 택한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공부 자체가 목적이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오늘 졸업하기까지 가족과 친지 여러분의 도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갚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은 실력으로 사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재능과 역량으로 사회에 기여해서 한국 사회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학벌사회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여러

분이 특히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입니다. 자유·평등·기회의 균등 등 민주사회를 보여 주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특히 기회의 균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 학업을 마쳤습니다. 누구보다 성공해 기회의 균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화의 사회입니다. 평생 학습하지 않으면 낙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으로, 지식을 키워 가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학벌사회를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대학에 순위를 매겨 한 줄로 세우니 중등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학벌사회는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파생합니다. 해결이 어려운 문제지만 학벌사회가 해소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성공하는 것이 학벌사회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길입니다.

흔히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연마해 온 과정을 보니까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끊임없이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대 여러분 파이팅! 졸업을 축하드립니다.